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 성료

'오늘은 나도 프로그래머'

전국 626팀 1600명 참여
정보교육 저변 확대 일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SFP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9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SFP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FPC는 진입 장벽을 낮춘 프로그래밍 챌린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정보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대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이 대회는 2021년 제주교육청, 2022년 경북교육청에 이어 올해 3회째다.

이번 대회는 전북교육청과 한국정보교사연합회(KAIT), 전북중등정보교과연구회가 공동 주관하고, 전북대학교(SW중심대학사업단),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한국비버챌린지, 넥슨재단이 후원했다.

특히 국제대회와 동일한 환경을 구성해 전국의 중·고등학생과 정보교사, 예비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북 75팀 208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626팀 1,600명이 참석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다양한 문제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해결해 보는 도전과 협력의 무대였다"면서 "대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 등 미래역량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협력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무주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전북국제태권도 설립 '온 힘'

무주군-무주교육지원청 '맞손'… 지역 인재 양성 목적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무주교육 실현을 위해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무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협력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무주군청 군수를 비롯한 총 11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통해 무주교육지원청과 무주군청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인적, 물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은 약속했다.

김승기 교육장은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주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태권도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전을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주 지역의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 'S등급'

전북자치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사업 평가서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 평가에서 '무주군 문화관광형 창업지원사업'이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 유지 및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노무관리, 세금, 회계, 인사, 마케팅 등), 창업자 1:1 맞춤형 멘토링, 네트워크 간담회 등을 진행해 창업자 9명에 초기창업지원금 8,3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이에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이번 평가에서 △창업자 초기창업 교육 내실화 △창업자 사업 유지율 및 매출액 증대 △타 권역 지역민 유입 △창업자 지역민 신규 고용창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사업, 교육부)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로컬JOB센터, 고용노동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창업진흥원) △진안군로컬JOB센터(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커플링사업(전북특별자치도) 등 2023년 25개의 국고지원 사업을 운영했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조덕현 단장은 "권역 내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최신 빅데이터 효과적인 활용방안 고찰 계기'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빅데이터 기술교류 세미나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는 지난 18일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학과장 류덕산)는 지난 18일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구성원과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중앙·행정기관(5개소), 공공기관(15개소), 학계(4개소), 전북 ICT 융합발전포럼 소속 기업 및 전북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융합대학사업에 빅데이터와 에너지 신산업, 항공드론, 반도체소부장 등 4개 분야 참여대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는 빅데이터 관련 장기교육 목표 공유, 공동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추진 현황과 PBL 교과목 개발 등 실적,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학생 증가 등 그간 성과들을 공유했다.

또한 정광용 펜타시스템테크놀러지 기술위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 가명정보 활용 동향'을 주제로, 그리고 김태정 엔코아 이사는 '일 잘하는 생성형 AI 활용(feat. knowledge graph)'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신기술 동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설명했다.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철중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는 "우리 연구회는 2020년 출범 이후 26개 기관과 MOU를 체결, 매월 빅데이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저변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전북대 소프트웨어공학과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기념 행사로 진행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류덕산 학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 정책과 방안,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 지식표현을 위한 지식 그래프를 적용하는 절차, 연계방안 등을 심도있게 모색했다"며 "이를 통해 최신 빅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고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RIS 사업단 글로벌 다문화 캠프

남원 청소년수련관서 진행

전주대학교 RIS 사업단은 지난 15~19일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다문화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RIS 사업단은 지난 15~19일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다문화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RIS 사업단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글로벌 다문화 캠프는 전북도 주관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의 일환으로 전주대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원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들과 함께 4박 5일 동안 이중언어 학습과 외국인 부모의 문화와 놀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외국인 어머니의 모국 문화를 이해하고, 이중언어 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행사를 총괄 진행한 전주대 전대성 교수(행정학과)는 "전주대학교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 12년 연속

사회적 책무 등 일환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2024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2학년도 6.4% 인하 후 1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해 온 우석대학교는 지난 15일부터 학생·교직원·동문·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남천현 총장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이 어렵지만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고물가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면서 "등록금 동결이 학생 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축재정과 정부 사업 수주 등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전북자치도교육청, 청구처리 분야서 만점 받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총 4개 분야 12개 지표에서 전체 항목 평균 점수 95.91점을 받았다.

이는 타시도 교육청 평균 점수(94.14점)보다 1.77점 높은 점수다.

특히 정보공개 처리 분야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기한 준수 및 청구 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 등 청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노력도를 인정받았다.

홍공숙 총무과장은 "앞으로 원문공개율의 꾸준한 상승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G-SEED 진로탐색 프로그램

사회복지학과·식품생명공학 전공, 독일·일본 각각 방문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6명(엄기욱 지도교수)은 최근 독일 베를린시에서 1960~1970년대 파독 광부 및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위해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단법인 해로(대표 봉지은)를 방문해 직원들과 교류했다.

특히 80~90연령대가 되어 홀로 살아가는 파독 광부 및 간호사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2023년부터 시작된 '시민급여' 즉,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독일 거주 시민권자에게 월 502유로를 지급하는 독일 사회보장제도 등을 학습했다.

국립군산대학교 ONSE대학 식품생명공학 전공 이주영 학생 외 5명(지도교수 박권삼)도 일본의 관서지역 산토리 맥주 교토공장, 인스턴트라면박물관 및 식문화박물관 등에 방문하여 전공 연계 진로탐색을 가졌다.

다양한 식품제조 공정 및 식품 안전성 확보수단인 HACCP에 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교토대학과 오사카대학을 방문하여 각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정보를 교환했으며 추후 공동연구 추진 의견도 공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G-SEED(글로벌 시드) 진로탐색학점제'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산=김판곤 기자